

# ‘콩쥐팥쥐’ 고향 두고 김제시와 완주군 신경전

설화 ‘콩쥐팥쥐’의 고향이 서로 자기 지역이라며 전북 김제시와 완주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해 전주 우석대에 용역을 의뢰해 ‘콩쥐팥쥐’의 주 무대가 이서면 은교리 앵곡마을이라며 이곳에 콩쥐팥쥐 마을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웃한 김제군이 지난 6월 전주대학교 용역 결과 ‘콩쥐팥쥐’의 주 무대는 금구면 둔산마을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완주군은 1919년에 나온 박건희의 소설 ‘대서두서’에 콩쥐팥쥐의 고향이 ‘전주 서문 밖 30리’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곳이 앵곡마을이라고 밝혔다.

또 ‘팥죽이 방죽’으로 불리는 두죽계를 비롯, 앵곡역, 새아지골 등이 모두 콩쥐팥쥐와 연



‘콩쥐팥쥐’ 설화가 자기 지역에서 탄생했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북 완주군과 김제시.

콩쥐 아버지(최만춘) 성씨인 최씨 집성촌과 인근에 팥쥐 어머니 성씨인 배씨 집성촌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두죽계가 현 행정구역상 완주 지역이지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전에는 김제시 금구면 지역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제시는 현재 금구면의 폐광과 한옥마을을 ‘동화와 한옥이 어우러진 마을’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관이 있는 지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하반기 앵곡마을 일대에 콩쥐팥쥐 집과 외가, 팥쥐 연못, 전라감사 행차로 등을 짓기로 했으며 지난 8월 초에는 콩쥐팥쥐 캐릭터를 개발, 현재 상표 등록 중이다.

김제시는 ‘전주 서문 밖 30리’는 김제시 금구면 둔산마을 일대로 이곳에

콩쥐 아버지(최만춘) 성씨인 최씨 집성촌과 인근에 팥쥐 어머니 성씨인 배씨 집성촌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두죽계가 현 행정구역상 완주 지역이지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전에는 김제시 금구면 지역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제시는 현재 금구면의 폐광과 한옥마을을 ‘동화와 한옥이 어우러진 마을’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모나리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대전 지역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모나리자의 우선협상 대상자가 서울 ㈜모나리자로 선정됨에 따라 지역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8월 7일 대전지법과 모나리자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모나리자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서울 소재 위생용지 업체인 ㈜모나리자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인수합병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9월 초 본계약 체결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서울 모나리자는 지난 한국 P&G의 쌍용제지 화장지 부문 인수와 신발업체인 엘칸토에 이어 3번째로 기업 인수합병에 나선 것. 특히 대전 모나리자의 경우 최근 몇 년간 ‘모나리자’라는 상표권을 놓고 서울 모나리자와 분쟁

을 일으켰던 동종 경쟁업체인 만큼 이번 인수가 최종 결정되면 단일상표권 행사가 가능해져 합병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시선이다.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이 다시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해 진다면 지역 경제에 있어서도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우선협상 대상자가 그동안 치열한 경쟁을 펼쳐 온 동종 경쟁업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기업 향방에 지역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8년 부도 이후 2004년까지 화의조건을 수행해오다 그해 7월 31일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전 모나리자는 1972년 쌍마화장지공업사로 창업한 이래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자리잡아 왔다.

### 생활 정보

## 꼭 갖고 싶었던 명품, 싸게 사려면...



또 꼭 하나쯤 갖고 싶은 명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알고 싶다면? 쇼핑하기 좋은 서울 시내 4곳을 소개한다.

#### 동대문 명품 매장

동대문에 위치한 밀리오레나 두산타워를 중심으로 한 수입 매장에서도 명품을 살 수 있다. 이곳은 일반 매장에 비해 3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며 여러 종류의 상품을 한 곳에 모아 놓은 컬렉티브숍이 많아 편리하게 쇼핑이 가능하다. 그러나 매장마다 가격이 다르므로 발품을 많이 팔아야 좋은 물건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 프라다(두산타워 지하2층 113호)
- 홀인원(두산타워 지하2층 219호)

#### 중고 명품 매장

명품을 사고 싶긴 한데 너무 비싸 망설여질 때 찾아가면 좋을 명품 중고 매장. 싫증난 물건은 위탁판매를 하거나 다른 물건과 교환할 수 있어 알뜰한 쇼핑이 가능하다.

- 세컨드 핸드 - 중고 매장이긴 하지만 주인이 직접 외국에서 사 가지고 온 신상품이 많은 것이 특징. 가방, 구두, 시계 등

의 패션 소품이 주를 이루며 고가와 저가,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가 따로 진열되어 고르기 쉽다.

위치: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건너편 파리카라상 건물 뒤편 (02-3445-1655)

#### 컬렉티브 매장

페라가모, 아르마니, 프라다 등 유명 브랜드 상품들을 한 곳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보다 경제적인 쇼핑이 가능하다. 또한 컬렉티브 매장들은 직수입한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유행에 한 발 앞설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의 하나. 가격은 시중보다 30% 정도 저렴하다.

• 도나노 - 차별화된 고품격 명품만을 판매하여 사장이 한달에 한 번 직접 이태리에 가서 물건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다른 곳에 없는 물건들이 많다. 주로 질 샌더, 구찌, 샤넬 등의 브랜드를 취급하며 가격은 백화점보다 약 30% 저렴하다. 철저한 고객관리로 한 번이라도 이 곳을 찾은 고객에게는 다음 번 물품 구입 시 15% 정도 더 할인해 준다.

위치: 반포 고속터미널 골드 예비뉴 명품관(02-533-7649)

#### 패션하우스

1층이 전부 수입 명품 할인매장으로 규모가 상당히 크다. 버버리, 구찌, 셀렌스, 펜디 등 명품들이 브랜드 별로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어 자신이 원하는 브랜드 코너에 가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핀, 헤어밴드, 시계 등 고급스럽고 예쁜 패션 소품들이 많아 여대생들이 즐겨 찾는 명품 매장 중 하나.

위치: 청담사거리 로데오 프라자 1층 (02-518-9321)

## 대한민국 대표 스팀 청소기



(주)한영베스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194-3  
(TEL) 1577-3555 (FAX) 032-679-7010  
[www.steamcleaner.co.kr](http://www.steamcleaner.co.kr) (한글주소 : 스팀청소)

# 특허넷 '세계 특허 시스템'으로 발돋움하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전자출원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에 보급되고, 이를 사용하겠다는 국가가 줄을 잇고 있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PCT-ROAD(PCT Receiving Office Administration)'라 불리는 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는 출원인이 국제특허출원서(이하 PCT 출원서)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경우, 각 나라 특허청에서 접수 및 사무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이스라엘, 이집트 특허청에 PCT-ROAD 보급을 시작으로 베트남, 필리핀 특허청에 성공적으로 보급을 완료하였고, 인도, 키르기스스탄 등 다수의 국가로부터 사용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전하고, 나아가 스페인, 프랑스 특허청 등은 PCT-ROAD 사용요청과 함께, 자국의 기금을 제공하면서까지 우리 특허청과의 정보화 공동협력사업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갑 특허청장은 '특허청이

PCT-ROAD를 성공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인터넷 기반에서 특허행정 전반을 완벽하게 전산화한 특허넷 시스템의 성과와 효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선진 특허청과 더불어 지적 권 분야의 국제규범 및 정보화 표준 정립을 주도하는 '선도 특허청'으로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WIPO 사무총장 이드리스 박사는 '전세계 모든 출원인은 PCT-ROAD를 이용하여 PCT 전자출원이 가능하게 되어 시간적, 경제적 혜택을 고투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결국 전자출원이 활성화 되어 WIPO를 포함한 전세계 특허청이 PCT 관련문서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WIPO는 전자출원 활성화를 위하여 PCT 출원서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PCT-

SAFE)를 개발하여 작년 2월부터 전 세계 출원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경우 최대 3백 스위스 프랑(약 28만원)의 수수료 감면혜택까지 주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의 많은 특허 출원인들은 WIPO에서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PCT 출원서를 전자적으로 작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PCT 수리관청의 접수 및 사무처리 시스템 구축미비로 출원자체가 불가능하여 전자출원으로 인한 편리성 및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청은 이미 전자출원 접수 및 사무처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WIPO의 요청에 따라 PCT-ROAD를 공동 개발, 현재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WIPO 홈페이지 내 PCT-ROAD 전용 홈페이지(www.wipo.int/pctsafe/en/pctroad)를 개설, 전세계 특허청이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005 창의력 놀이터'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 계발

지난 7월 말, 인천광역시 강화에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 아동센터 '선민아이들세상'이 주최하고 숙명여자대학교 발명 동아리 '영똥한 사람들'이 주관하며, 성균관대학교 발명동아리 '기상천외'가 협력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 삼성생명,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숙명여자대학교가 후원한 '2005 창의력 놀이터'가 개최되었다.



'2005 창의력 놀이터'에 참가한 '선민아이들세상'의 50여명의 초등학생들과 숙명여자대학교 발명동아리 '영똥한 사람들'이 함께 한 모습.

'선민아이들세상' 초등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캠프는 바다에 직접 나가 생태조사를 하며 생명의 신비와 소중함을 깨닫는 '갯벌 체험', 세계 지도를 가지고 의사소통하게 하는 '의사소통 만들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독창적인 표지판을 만드는 '세상의 하나뿐인 표지판', '상황연극', '달걀 구조물 만들기', 'A4 용지로 하중 견디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 활동에 대한 친근감을 기르게 하는 등 유익한 시간이 진행되었다.

이번 캠프를 주관한 숙명여자대학교 발명동아리 '영똥한 사람들'의 손진영 회장은 '아이들이 이번 발명캠프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적으로는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며 '발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 실탄 없는 군사훈련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군사훈련에서 실탄을 사용하지 않고도 실전과 거의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훈련 중의 사격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며, 소음이 발생하고 민간인의 출입통제가 필요하여 민원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훈련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격 시뮬레이션 장비가 개발되고 있다.

총포 사격 시뮬레이션 장비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1990년대 초 출원이 시작되어, 최근 5년간 32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외국의 경우에도 미국은 '81년부터 현재까지 77건이 특허로 등록되었고, 유럽은 '84년부터 1백3건이, 일본은 '88년부터 71건이 특허 공개되는 등 이 분야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고

에서 아이들도 발명이란 즐거운 것이라는 것을 느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이처럼 발명 문화에 대한 혜택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곳을 찾아 다양한 기회를 많이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후원처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조되고 있다.

이처럼 이 분야의 특허출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과거에 군사용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것이 서바이벌 게임 등의 활성화에 힘입어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 특허 출원된 사격 시뮬레이션 장비는 개인사격, 곡사화기, 전차 사격 및 교전 훈련 등에 관한 것이며, 이 중에서 정지된 표적을 쏘는 개인사격 시뮬레이션 장비가 전체 출원의 55%로 가장 많다. 사격 시뮬레이션 장비는 레이저, 무선통신, 광센서 및 제어 기술 등이 접목된 통합 시스템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실탄이 아닌 레이저빔의 부족한 현장감을 보완하기 위하여 총성 및 반동 발생 장비에 대한 특허도 함께 출원되고 있다.

### 건강 상식

## 생활 속에서 쉽게 하는 허리 디스크 예방법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는 허리에 무리한 힘이나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허리에 웬만한 부담이 가도 잘 견디도록 강한 허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알아보자.

일하거나 서 있을 때 허리를 굽히고 있는 동작은 별로 좋지 않다. 만약 허리를 오랜 시간 구부리고 있어야 한다면 발 받침을 사용하거나 무릎을 살짝 구부리는 것이 좋다.

잠잘 때 침대가 너무 폭신하거나 꺼진 것은 좋지 않다. 너무 폭신한 침대는 무게 중심이 골반 쪽에 집중되면서 허리가 등 부위로 휘게 되는데 밤새 휘어져 있다 보면 뼈마디 사이가 벌어져 디스크의 원인이 되고 근육에도 무리가 간다. 똑바로 누워서 잘 때는 무릎 밑에 베개를 놓아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거나 옆으로 누워서 새우잠을 자는 것도 괜찮다. 이때도 무릎은 구부리는 것이 좋다.

앉아 있을 때 의자 끝에 미끄러지게 앉는 것은 좋지 않다. 또 의자에서 멀리 앉아 몸을 앞으로 구부리는 것은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책상에서 너무 떨어져 앉거나 너무 높은 의자에 앉는 것도 허리

에 부담이 된다. 의자에 오래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가급적 허리를 받쳐주도록 설계된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필요하면 쿠션을 사용해 허리를 받쳐주는 것도 방법. 아무리 좋은 자세도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좋지 않아 20~30분에 한 번씩 자세를 바꾸도록 한다.

운전할 때 무릎이 고관절보다 낮거나, 운전대에서 너무 멀리 앉는 것은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다. 허리를 받쳐주는 받침대나 타월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상체만을 앞으로 숙여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추간판에 걸리는 압력은 무릎을 굽히고 상체를 똑바로 해서 들어 올릴 때보다 두 배 이상 크다.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고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는 체중의 3분의 1에서 5kg을 뺀 수치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먼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물건을 몸에 바짝 끌어당긴 다음 들어 올려야 한다.

# 특허청 지식재산권 용어 영한사전 발간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분야는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하고 법률과 과학기술이 접목되는 등 매우 전문적이어서 이와 관련한 영문 용어는 일반인은 물론이고 관련 업무 종사자들조차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연구원, 발명가 등 지식재산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업무수행 및 연구에 도움을 주고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의 지적욕구를 만족시키고자 '지식재산권 용어 영한사전'을 발간하였다.

이 사전에는 지식재산권의 세계화 및 정보화에 따른 새로운 용어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 용어 사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문이 삽입되었으며, 지식재산권 출원 및 소송과 관련된 문구에 대한 해석도 포함되어 있다.

'지식재산권 용어 영한사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접속하여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아이콘을 눌러 온라인으로 검색하거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볼 수 있다.